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802호

美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교회 또래보다 신앙·정신 더 좋아

목회데이터연구소, 한인교회 청소년 165명 대상 조사

낮은 신앙 수준: 美 18% 韓 52%

높은 신앙 수준: 美 12% 韩 7%

전도 경험률: 美 62% 韩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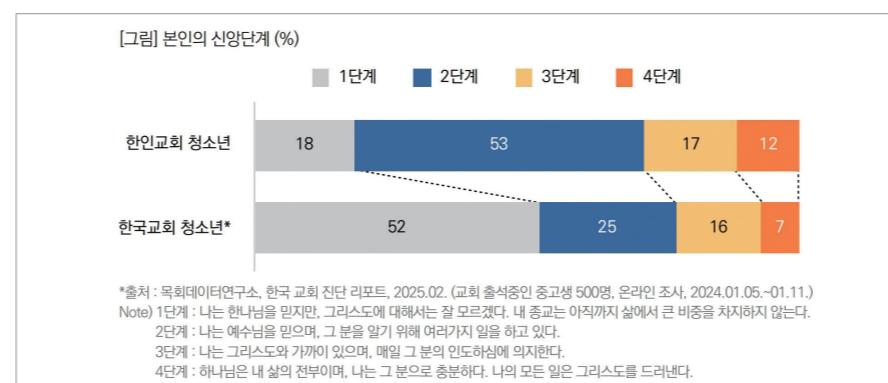
부정적 감정 느끼는 비율 韩 더 높아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한국교회 청소년들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뉴욕지역 교회협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 한인교회 소속 청소년(만 11~18세) 16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해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를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신앙 수준을 1~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니, 신앙 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한인교회 청소년은 18%, 한국교회 청소년은 52%로 나타났다.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4단계 비율은 한인교회 청소년 12%, 한국 청소년 7%였다.

목데연은 “3·4단계를 합친 비율도 한인교회 청소년과 한국교회 청소년 각각 29%, 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인교



©목회데이터연구소

회 청소년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전도 활동에 있어서도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지난 1년간 전도 경험을 물은 결과, 62%의 한인교회 청소년이 전도를 시도한 사람 수도 평균 3명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청소년이 한국

했으며, 이들이 시도한 평균 전도 대상은 4명이었다.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의 전도 경험률은 43%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19%p 낮았으며 전도를 시도한 사람 수도 평균 3명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전도에 좀 더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또 한인교회 청소년이 일상생활 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무기력, 학업 흥미 감소, 자살에 대한 고민 등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서 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했던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의 81%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아름바 ‘모태신앙’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기독교인인 경우 모태신앙 비율은 91% ‘부모 중 한 명만 기독교인’ 경우는 58%였다.

아울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예배 형태에 대해선 한인교회 청소년의 94%가 ‘현장 예배를 선택해 현장 예배 선호가 매우 강했다고 한다. 온라인 예배 등 기타 응답은 각각 3% 이하로 매우 낮았다.

김진영 기자

중국 국영교회, 예배 전 공산당 찬가 의무화 논란

중국 정부, 예배 음악도 ‘중국화’ 추진…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 이념의 충돌 심화

중국의 국영 기독교 조직인 ‘삼자교회’ 소속 교회들이 주일예배에서 마지막 솔영을 부르기 전에 공산당 찬가를 의무적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당국이 기독교 음악까지 사회주의 체제에 맞춰 개편하려는 ‘2025년 교회 음악 계획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밖에 감시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와 협력 기관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지난 5월 7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식화됐다. 이 회의에는 삼자애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회 소속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교회 음악 사역 청사진’이 발표됐다.

현숙 폴리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중국 정부는 ‘중국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 앱을 통해 전국 교회에 배포해 통일된 방식으로 예배에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21년 이후 정부는 ‘찬미의 노래(Praise Hymn Net)’와 ‘아가(Song of Songs)’와 같은 기독교 음악 앱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그 결과 전통적인

찬송가나 현대적인 예배곡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승인한 음악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예배는 점차 공산주의 이념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밥 푸(Bob Fu) 차이나에이드 대표는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주석의 체제 아래서 기독교 탄압을 더욱 강화해왔다”며, “이제는 찬송가조차도 사회주의 정신과 공산주의의 구호, 시진핑 사상에 맞춰 재구성되고 있다.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앞서 공산당을 먼저 친마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교회 음악 사역 청사진’을 통해 각 교회에 음악팀을 공식 조직할 것과, ‘중국화된 찬양곡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음악 콘서트 개최’를 권고했다. 이는 예배 현장뿐 아니라 교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국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신학교 교육, 설교 내용, 목회자 자격 등을 통제해왔고, 이제는 찬송가까지도 그 통제 범위에 포함시켜 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찬송가는



‘청두 생명샘 교회Chengdu Fountain of Life Church’ 성가대. 이 교회는 2021년 3월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신학적 교육의 도구로 기능해왔다. 정부가 이를 바꾸려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은 이러한 억압적 환경 속에서 중국 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기독교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지만, 라디오 방송은 디지털 흔적이 남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접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현재 하루 두 차례,

30분 분량의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국 내로 송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 낭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찬송가를 포함할지를 놓고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수백 년간 전 세계 교회와 함께 불러온 찬송가를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차이나에이드와 중국 기정교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제 기독교 공동체가 연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환 기자

‘2025 기독장병 구국성회 및 결연축제’ 18일부터 개최

군 장병들 6·25 기억하고
국가와 군 위해 기도하는 행사



한국군종목사단(단장 정비호 목사)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부회장 강정호)는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2025년 기독장병 구국성회 및 결연축제’를 개최한다.

구국성회는 군 장병들이 6·25전쟁을 기억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기도하는 행사로, 올해로 34회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결연축제’가 함께 진행된다. ‘비전2030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결연축제는 전역을 앞둔 장병과 이들의 연고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장병이 전역 후에도 교회 공동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군종목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는 전국 교회 50곳과 선교단체 10곳이 참여했으며, 총 565명의 장병이 교회와 연결됐다. 올해는 참여 교회 수를 확대해 더 많은 결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종독 치료, 가족·정부 지원 등 총체적 접근 필요” ➤ 7면

크리스천 힙합팀 하샤브,
싱글 ‘이미얻은승리’ 발매 ➤ 23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